



정읍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에서는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지역 농산물과 각종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눔과 배려가 어우러지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일 의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발걸음이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된다"며 "정읍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행복미용 서비스 추진 '맞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0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김태)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미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고항서당기금 1,600만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원시 120만원봉사대의 찾아가는 현장방문과 연계해 추진된다.

남원시와 남원시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미용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협약을 체결.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태 지부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사업 배경과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약서에 서명한 뒤, 차담회를 통해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찾아가는 행복미용 서비스는 읍면동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문 미용사가 120만원봉사대와 함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원실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남원시는 11일,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은영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 교육에서는 민원실이 시민이 행정을 처음 접하는 창구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같은 업무라도 설명 방식과 응대 태도에 따라 시민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공유했다.

특히 직원 한 사람의 말과 표정, 태도가 곧 시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음성장 '온(溫)마음학교' 특화프로그램 협약

김제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가 11일 북초등학교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溫)마음학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따스하고 온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진 온(溫)마음학교는 지난 2020년 김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후 김제초등학교, 김제삼산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원평초등학교와의 협약을 진행했다. 참여 학교 및 학생의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생명사랑 인식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김제=곽태 기자

축제 예술성·운영 안정성 이끌 책임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임 집행위원장에 김정수 전주대 교수 위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는 11일 열린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총회에서 김정수 전주대 교수를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선은 축제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예술 기획과 조직 운영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으로 이뤄졌다. 소리축제는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규모 문화행사 기획·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 축제 운영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김정수 교수에 위촉했다.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은 전북도립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실장과 삼익연출을 역임했으며, 소리축제 예술감독을 맡아 축제 기획과 제작 전반을 이끈 바 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전주월드컵 문화행사 집행위원회 기획연출팀장, 제8회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추진기획단장, 제9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등을 역임하며 대규모 문화행사 기획과 연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학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석대 연극영화과 겸임교수와 영국 SOAS 런던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전주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리축제는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이 예술 현장과 학계, 지역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의 예술적 방향 설정과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 신임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나 소통해 온 의미 있는 축제"라며 "그 동안 축제가 축적해 온 성과를 존중하면서 예술적 깊이와 동시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가와 관객,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리축제는 이번 집행위원장 선임을 계기로 예술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 확대와 안정적인 축제 운영 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군산대 공무원직장협 서해성 신임 회장 당선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제15대 회장(제12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산지부장)에 서해성 씨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거는 지난 10일 한국전자투표서비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88.5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단일후보로 당당하게 출마한 서 당선자는 투표자 137명 중 136명 찬성으로 99.2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 당선자는 2026년 3월부터 국립군산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15대 회장 제12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군산지부장직을 맡아 대학 위상 강화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해성 당선자는 "학생인구가 감소하고 AI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대학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도 더욱 중요하고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노조 대표로서 "익숙한 공약을 이행하고 어려운 업무 가운데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서포터가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신임 및 전임 직원 환영, 직급별 간담회 정례회, 2030세대 활성화 운영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과의 정기 간담회 추진으로 갑질 제로화 등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화재로 집 잃은 도민에 '가전까지 지원'

전북소방, 국제로타리 3670지구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1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김성희)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화재피해로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 본부가 추진 중인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 가구에 3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119행복하우스는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재원을 바탕으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재건축을 지원해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의 주거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주택 재건축 지원에 더해 생활 필수 가전 지원까지 연계해 피해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 신축(119행복하우스) △주택 수리(119안심하우스) △임시거처비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무로 심리상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후부터 주거 복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만호 기자



새 보금자리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 신축(119행복하우스) △주택 수리(119안심하우스) △임시거처비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무로 심리상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후부터 주거 복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만호 기자

김제경찰서 등, 장애인복지관에 생필품 전달

김제시는 11일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와 김제경찰발전협의회(회장 박동원)가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에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제경찰서 박승준 서장을 비롯한 경무과 관계자와 경찰발전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김과 두유 등 130만원 상당 생필품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태 기자



아영면 의용소방대, 26개 마을에 라면 기부

남원시 아영면은 면 의용소방대에서 1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해 26개 마을에 라면 26box(8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아영면 의용소방대는 해마다 화장지, 라면, 백미 등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모범 단체이며, 오준록 의용소방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사회복지시설 위문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우현)은 설 명절을 맞아 11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애육원과 자아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2025년 청렴노력도 우수 기관 선정" 포상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은 우수기관 선정의 기쁨을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천면 발전협,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 주천면 행복복지센터(면장 노환순)는 지난 10일, 면 발전협의회(회장 노인호)에서 백미 10kg 23포를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면 발전협의회가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기부 활동의 하나로,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후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광희)는 병오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11일 무진장지역 이동센터 3개 기관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무진장지사는 2025년도 한국농어촌공사 행복증진 활동 전국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부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주요 공적은 차매예방 협업활동, 지역이동센터 재능기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역도서관 도서기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복지 및 공사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장수군 지역이동센터, 진안군 진안마을이용 지역이동센터, 무주군 무주남부지역이동센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각 기관별 50만원씩 전달했다. /장수=곽태 기자



부안 농어촌공,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이광희)는 11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부안군 관내 전통시장, 버스 터미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활동을 벌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만 65세~84세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에게 매도 또는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월 40만원~50만원(1ha 기준),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를 방문하거나 전화(063-580-1013)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광희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화와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자치도, 설 명절 자립준비청년과 한 상 나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홀로 명절을 보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전주 덕진구 국제요리학과 완산구 카페 영월화당에서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세시따담(歲時茶談)'을 운영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보호종료 이후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세시따담'은 세시풍속과 다도, 담소의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으로, 전통문화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떡국과 전, 잡채 등 설을 대표하는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어 진행된 다도 체험에서는 차를 우리는 방법과 다례예절을 배우며 여유와 배려의 의미를 되새겼다. 차를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참여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했다. /1만호 기자



순창경찰,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 보고회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명절 연휴 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치안대책은 금융기관·금융업·무인점포 등 지역 내 주요범죄 발생 장소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시적 순찰을 강화해 선제적인 범죄 예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귀성·귀경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결빙 사고취약 구간 점검 및 재래시장 등 혼잡장소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때 증가하는 가정폭력, 관계성 범죄 등에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에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